

# 주간 경제 산업 동향 (4월 1주)

주페루  
대사관

주요 경제 지표 (4.6일 기준)								
환율(Sol/US\$)		기준금리 (중앙은행)	GDP(PBI) (%)		소비자 물가(2011.12=100)		건설자재 물가(2013.12=100)	
BUY	SELL		1월	2017.12 -1월	3월	1-3월	3월	1-3월
3.227	3.228	2.75%	2.81%	2.33%	0.49%	0.97%	0.17%	1.71%

\* 일부 내용은 코트라(리마무역관)에서 제공

## □ 기업경기전망지수 상승(12개월 전망), 단기(3개월) 전망은 하락

- 중앙은행(BCR)이 페루 주요 3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간 거시경제 전망 조사(기업경기실사지수)에서 12개월 전망지수는 상승하였으나, 3개월 전망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nero 2018	Feb. 2018	Mar. 2018	Zona optimista	Tender del m
Expectativa de la economía a 3 meses	59	55	54	✓	↓
Expectativa de la economía a 12 meses	71	64	66	✓	↑
Expectativa del sector a 3 meses	58	57	56	✓	↓
Expectativa del sector a 12 meses	69	64	67	✓	↑
Expectativa de la situación de su empresa a 3 meses	62	60	58	✓	↓
Expectativa de la situación de su empresa a 12 meses	73	68	70	✓	↑
Expectativa de demanda de sus productos a 3 meses	64	63	61	✓	↓
Expectativa de demanda de sus productos a 12 meses	78	71	73	✓	↑
Expectativa de contratación de personal a 3 meses	52	51	51	✓	↓

Fuente: BCR 1/ Mayor a 50 puntos (posición neutral) significa que la confianza está en el tramo optimista y menor a 50 puntos en el tramo pesimista

- 향후 12개월 경제전망은 2월 대비 2점 상승(66점, 50점 이상이면 낙관적 의미) 하였으며 특히, 상업, 서비스, 광업부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기 기업 및 제품수요에 대한 12개월 전망도 각각 2점씩 상승(70점, 73점)함. 다만, 3개월 전망에 대하여는 신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우려로 전월 보다 낮게 나타남.

(Gestion 4.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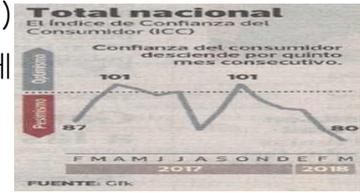
## □ 정치적 불안요인 해소로 금년도 3.5% 성장전망(리마 상공회의소)

- 리마 상공회의소(CCL) 경제개발연구소(IEDE)는 최근 성공적 정권이양으로 정치 불안요인이 상당 해소되면서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 1분기에는 3%, 금년도 전체로는 3.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IEDE는 새로운 내각구성으로 국내 정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도 경제팀에 신뢰의 신호를 보이면서 민간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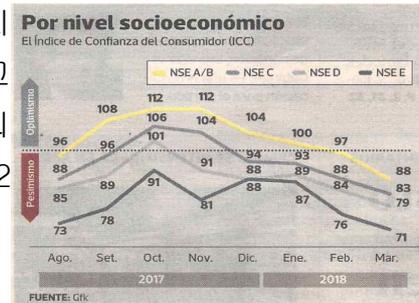
(Gestion 4.6일자)

□ 3월 소비자신뢰지수 최근 내 최저 기록, 정치 불안이 주요인

- 통계 전문기관(GfK)이 실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ICC) 조사결과, 국가 전체는 물론 사회계층별(A-E층)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치 불안으로 금년 현재까지도 지수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월에는 80이하로 떨어짐. 그리고 사회계층별 기대치도 3개월 연속 하락추세를 보였으며 1-2월 대비 3월은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함.



- 아울러, 향후 경제여건 개선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14%만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민 대부분은 금년도 경제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Gestion 4.2일자)

□ 정치혼란에 공공투자 감소, 당초 전망치(17.5%) 보다 낮은 9-10% 전망

- 경제재정부(MEF)에 따르면, 금년 1~2월 동안 증가세를 보여온 공공투자가 3월에는 1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주정부(-20.4%) 및 지방정부(-23%)의 투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금년 1분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공공투자는 각각 21%, 15% 증가한 반면, 주정부의 공공투자는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페루 주정부 총회(ANGR) Luis Valdez 회장은(현 Libertad 주지사) 사업실시를 위해 중앙정부에 신청한 예산 배정이 늦어진 것도 감소 요인 중 하나라고 밝힘.

- 교통통신부와 주택건설위생부는 전년도 1분기 대비 각각 49%, 113.1% 증가한 반면, 농업관개부(-11%), 보건부(-39%), 교육부(-0.1%)는 감소함.

- Juan Carlos Odar 컨설턴트는 당초 전망된 17.5% 증가목표 달성위해서는 남은 8개월 동안 평균 25%의 증가세를 지속해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대 9~10%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Gestion/Andina 4.4일자)

## □ 2월 무역수지 4.6억불 흑자 기록, 2016.7월 이후 연속 증가세

- 중앙은행(BCR)은 2월 페루 무역수지가 4.61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2016.7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힘.



- 다만, 전년 2월(7.27억불) 보다는 낮은 흑자를 기록함. 수출은 비전통제품의 수출증가(19.1%. 9.82억불)에 힘입어 총 35.75억불을 기록(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소비재(13.5%) 및 자본재(8.5%)의 증가로 31.14억불을 기록하였다고 밝힘.

(Gestion 4.6일자)

## □ 금년도 건설산업 3% 성장 전망, 공공인프라 사업 추진 활성화가 변수

- 페루건설협회(CAPECO) Guido Valdivia 회장은 금년도 건설산업이 광산개발 및 공공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3%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Valdivia 회장은 광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2017년 40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2018년도에는 50억불 이상이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광산업 투자증가는 건설산업 투자 확대로도 연결 될 수 있다고 함.
- 광산개발 프로젝트 관련, Valdivia 회장은 국제 광물가격 시세에 따른 가격 변동, 지역공동체와의 합의, 승인 및 허가 지연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또한, 금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바, 각 지역 후보자가 광산 사업 유치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향후 광산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Valdivia 회장은 ‘금년에는 부동산, 공공인프라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3%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고 특히, 공공인프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얼마든지 변동 될 수 있다’ 고 강조함.

(Gestion 4.3일자)

## □ 신임 생산부 장관, 생산다각화(PNDP) 계획 재추진

- 생산부(Produce) Daniel Córdova 신임 장관은 2년전 前생산부 장관이 추진해온 생산다각화 계획(PNDP)을 재추진 할 것이며 특히, 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이라고 함.
- \* 7% 성장을 목표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야별 장애요인 제거, R&D 및 혁신 강화, 세제 인센티브, 산업단지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음.
- 또한, 민관 공동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전 장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함.
- 그는 既구축되어 있는 가마라(Gamarra) 지역을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병목처럼 막힌 부분을 넓혀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제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함.

(Gestion 4.6일자)

## □ 페루 제조산업 4년 연속 감소로 75천개 일자리 상실, 대책마련 절실(산업협회)

- 페루 국가산업협회(SNI) 본 웨데메어(Von Wedemeyer) 회장은 페루 제조산업이 2014년-2017년간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최근 7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산업부문에서 75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비전통 부문(부가가치형) 수출기업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함.
- 산업생산 감소는 GDP에도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쳐 2012년 16.5% 수준에서 2017년 12.7%로 하락하였으며 93개 업종 가운데 49개 업종이 적자로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 산업부문 투자확대 및 활성화 정책추진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150만 명의 노동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함.
- SNI 회장은 산업후퇴의 요인이 정부의 투자친환경 조성노력 부족, 기업주에 불리한 노동규정, 과도한 세금, 인프라 부족, 정치 불안, 관료행정 미숙 등 국내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함.

- 페루는 노동계약, 해고가 가장 복잡한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며, 세금부담에 있어서도 OECD 국가의 평균 23% 대비 40%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노동생산성도 PA(태평양동맹) 회원국 보다 낮은 수준임.
- Wedemeyer 회장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4대 개선 방안으로 ①산업진흥 정책을 국가정책 어젠다에 포함, ②다자·양자 협정의 기업 신시장 개척 적극 활용, ③ 자유경제구역(ZEE)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④산업계에 혁신과, 생산시설 확충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 등임. 을 제시함.

(SNI 자체발행 월간지)

#### □ 금년도 온라인 구매 증가 전망, 교환/환불 등 고객서비스 강화 필요

- 전문조사 기관(ISIL)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 고객의 76%는 금년도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 500솔(160불) 이상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2%였으나, 금년에는 67%로 나타남.
- 온라인 구매 증가 경향에 대하여, Antonio Alvaro 이사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도 향상,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 식음료 업종의 온라인 진출 증가 등이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구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36세 이상은 1,000솔 이상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 연령별 구매 품목은 18-25세는 음식 배달, 26-35세는 의류 및 신발, 36-45세는 여행티켓, 입장권 및 전자제품 등이며, 구매자 대부분은 신제품 및 브랜드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매 회수는 월 1회 이상 구매하며, 구매층은 상위 계층(A/B)이 많으며, 구매 고객의 55%는 백화점 온라인 마켓을, 45%는 포털, 37%는 제품생산 기업이 운영하는 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Alvaro 이사는 온라인 기업이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환, 환불, 택배 등 고객 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Gestion 4.3일자)

## 【별첨】 페루 주요경제 동향

### 1. 한국의 對페루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US\$천)

구 분		2016		2017		2018.2월	
순위	품목명	금액	수출 증감률	금액	수출 증감률	금액	수출 증감률
1	승용차	418,905	5.1	289,597	-30.9	36,926	-21.1
2	화물자동차	70,155	-5.4	71,557	2.0	13,950	57.4
3	경유	58,395	0.0	69,512	19.0	0	0
4	합성수지	64,039	-43.8	60,782	-5.1	11,865	15.6
5	제트유및등유	48,934	42.8	43,196	-11.7	0	0
6	자동차부품	40,542	12.2	41,356	2.0	5,908	9.5
7	기타석유화학제품	24,773	-16.1	29,867	20.6	5,680	23.1
8	기타정밀화학원료	28,831	-28.9	29,458	2.2	5,420	36.1
9	의약품	22,573	0.0	23,720	5.1	1,610	48.8
10	건설중장비	19,498	-9.0	18,118	-7.1	5,797	244.4
11	무선전화기	24,778	-60.7	15,323	-38.2	601	-36.8
12	시멘트	6,187	-72.9	11,139	80.0	2,390	115.2
13	세탁기	10,568	-10.4	10,548	-0.2	862	-62.8
14	축전기	6,176	54.2	9,847	54.6	653	-29.1
15	타이어	12,891	-10.2	9,482	-26.4	678	-65.5
	<b>총계</b>	<b>1,154,989</b>	<b>-5.1</b>	<b>913,801</b>	<b>-20.9</b>	<b>119,288</b>	<b>0.6</b>

### 2. 한국의 對페루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US\$천)

구 분		2016		2017		2018.2월	
순위	품목명	금액	수입 증감률	금액	수입 증감률	금액	수입 증감률
1	동광	236,793	-2.1	603,016	154.7	85,538	-12.1
2	아연광	252,635	13.5	533,878	111.3	94,057	0.4
3	기타금속광물	413,429	84.6	418,451	1.2	91,115	56.9
4	천연가스	39,473	0	143,491	263.5	71,649	7.8
5	나프타	71,617	-25.4	79,117	10.5	0	0
6	기타수산가공품	64,042	-10.5	77,014	20.3	12,287	-23.3
7	과실류	45,889	-2.3	72,996	59.1	28,775	64.1
8	은	33,489	-51.7	50,513	50.8	5,778	0.7
9	커피류	25,858	-28.5	34,464	33.3	7,035	-21.7
10	동괴및스크랩	23,388	-12.0	22,734	-2.8	2,034	-48.8
	<b>총계</b>	<b>1,294,386</b>	<b>14.0</b>	<b>2,132,958</b>	<b>64.8</b>	<b>415,184</b>	<b>7.4</b>

주) 환율은 연/월말 증가 기준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이코노미스트

### 3. 페루 주요경제 요약 총괄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GDP 성장률	%	3.3	3.9	2.7
물가상승률	%	3.5	3.6	2.9
이자율	%	2.4	2.6	3
실업률	%	6.2	6.0	6.7
최저임금	Sol	750	850	850
외채총액	백만불	73,274	74,651	75,900
외환보유고	백만불	61,485	61,686	63,414
통화량	백만솔	40,643	43,295	47084
수출	백만불	34,236	36,838	-
수입	백만불	37,385	35,107	-
무역수지	백만불	-3,150	1,730	1888
경상수지	백만불	-9,402	-5,461	-
환율	Sol/US\$	3.203	3.379	3.25
FDI	백만불	9,039	4,675	1430
국가위험도	1-12월 평균	201	200	200

### 4. GDP 성장률

연도	단위	2015	2016	2017
명목 GDP	백만솔	612,791	658,713	650,604
실질 GDP	백만솔	482,809	501,622	429,711
GDP성장률	%	3.3	3.9	2.7
1인당 GDP	US\$	6,027	5,950	6,506

\* 예상치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 5. 물가상승률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승률(%)	2.86	3.22	4.40	3.23	2.9

### 6. 이자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기준금리(%)	2.3	3.5	4.25	3.00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